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8	07. 25	08. 01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귀국 - 유미영, 김효종 집사 가정(17일, 오후 1시30분 브레멘 공항)
3. 교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99장 다같이
 기 도 Gebet 유미영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대상 22 : 1 - 5(구p643)..... 유미영 집사
 (1.Chronik 22:1~5)
 설 교 Predigt 내가 아니어도 좋아!.....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01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특별찬양 Sonderlied 김효종 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신앙의 씨앗 세 가지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각각 20여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을 통해 신앙의 씨앗 세 가지가 저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 둘째.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나, 류태영을 사랑한다는 사실, 셋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내 마음 지성소에 뿌려진 이 세 가지 씨앗은 일평생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나를 키워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내가 덴마크 유학을 결심하고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농촌에 대한 논문을 쓰라, 유학을 위해 당시 덴마크 국왕 Frederick IX세에게 편지를 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기적같이 덴마크로 가서 언어를 배울 때도 기도 중에 덴마크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흉내 내면 되겠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문장을 외웠고,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령의 지성소에 새겨진 씨앗으로 그 모든 일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공정을 선택한다 / 류태영 박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말씀 목상이 당신 삶에 영적 자양분의 공급원이 되도록 하라.
- Warren W. Wiersbe(Youth Christ International 대표 -